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11 pp. 244-252, 2018

https://doi.org/10.5762/KAIS.2018.19.11.244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성별에 따른 고령자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유소현[1], 박창제[2*]
[1]대구 여성가족재단, [2]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Determinants of the Elder's Life Satisfaction by Gender

Sohyen You[1], Chang-Je Park[2*]
[1]Daigu Women & Family Foundation
[2]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성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은 통계청 2013년 사회조사 자료에 포함된 60세 이상 고령자 9,456명(남성고령자 4,113명, 여성고령자 5,343명)이었다.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을 한 결과 남녀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이 다른 경우도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연령은 남성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교육수준은 남성 고령자와 여성 고령자 공히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셋째, 배우자가 있으면 남성의 생활만족도에만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넷째, 가구소득이 남성 고령자와 여성 고령자의 생활만족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소비생활만족도는 남녀 고령자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남녀 고령자 모두 자기 집이 있는 경우가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일곱째, 노후준비 역시 남녀 고령자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여덟째, 3가지 유형의 사회적지지 모두가 남녀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아홉째, 자녀와 동거는 남녀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공히 부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열째, 자원봉사활동은 남성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열한째, 사회단체참여는 남녀 고령자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공히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se determinants of elders' life satisfaction by gender and discus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indings. Data was obtained from the Social Statistics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13. From this dataset, 9,456 elders aged 60 and above (4,113 male, 5,343 female)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Results of ordered logit analysis found differences for determinants of elders' life satisfaction by gender.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ge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only male elders' life satisfaction. Second, education level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both male and female elders' life satisfaction. Third, having a spouse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only male elders' life satisfaction. Fourth, household income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both male and female elders' life satisfaction. Fifth, consumption life satisfact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both male and female elders' life satisfaction. Sixth, house ownership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both male and female elders' life satisfaction. Seventh, preparation for aging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both male and female elders' life satisfaction. Eighth, each of three types of social support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both male and female elders' life satisfaction. Ninth, cohabitation with children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both male and female elders' life satisfaction. Tenth, volunteerism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only male elders' life satisfaction. Eleventh, social group participat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both male and female elders' life satisfaction.

Keywords : Elders, Life satisfaction, Gender, Gender comparison, Social activity

---

본 논문은 유소현의 석사학위논문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다.
*Corresponding Author : Chang-Je Park(Kyungpook National Univ.)
Tel: +82-10-5522-4447 email: cjpark@knu.ac.kr
Received August 2, 2018 Revised October 4, 2018
Accepted November 2, 2018 Published November 30, 2018

1. 서론

우리나라는 2017년 8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14%를 넘어감으로써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20].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빈곤, 건강, 주거, 무위와 고독 등 다양한 노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노후생활을 들여다보면 어떤 측면에선 남성이 다른 측면에서는 여성이 삶의 질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다.

여성고령자가 남성고령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건강상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여성고령자는 남성고령자에 비하여 경제활동기에 자녀양육과 가사활동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낮고 참여해도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또는 경력단절의 경험비율이 높아서 경제적 노후준비가 쉽지 않았다. 또한 수명이 남성보다 약 6년 이상 길고 따라서 독거노인으로 사는 기간도 길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 노인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여성노인이 남성고령자보다 가족자원이 더 많고, 빈번한 접촉을 하며, 친구・이웃과의 접촉규모도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관계자원 구조는 성별 차이를 지니며, 각각 다른 기능을 제공하며, 남성 독거노인의 관계자원 형성은 배우자 및 가족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27][1].

남성고령자의 경우 경제활동 중심으로 관계자원이 형성되어 있음으로써, 여성노인에 비해 은퇴로 인한 공식 관계망의 축소 폭이 크고, 근로연령시기에도 가족, 친인척, 친구 등 비공식적 관계형성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노령기 관계자원의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27].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성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고령자의 생활만족도

고령자의 삶의 질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측면이라면 이는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일 것이다[22]. 생활만족도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주관적인 안녕감(the sense of well-being)이지만[7], 정서적 안녕(affective well-being)이라는 단기적인 감정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정(assessment)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30]. 국내에서 생활만족도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삶의 질[15][17], 주관적 안녕감[31], 생활만족도[26][4], 성공적 노화[3][10] 등 다차원적 개념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주관적 관점에서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한다[2][4][11][16][27].

2.2 고령자 성별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고령자를 성별구분 없이 동질적 집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남성 고령자와 여성 고령자를 분리해서 볼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마다 구체적인 형태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32]. 하지만 여성 고령자가 남성 고령자에 비하여 경제적, 사회적, 건강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실제로 2014년 노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고령자들이 남성 고령자들에 비하여 평균수명은 길지만 취업여건이 열악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으며, 교육수준과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낮아서 노년기 삶의 질에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9].

그러나 여성 고령자의 삶이 남성 고령자에 비하여 유리한 점도 없지 않다. 남성 고령자보다 가족자원이 더 많고, 빈번한 접촉을 하며, 친구・이웃과의 접촉규모도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관계자원 구조가 성별 차이를 보이는데, 이 구조는 각기 다른 기능을 제공하며, 남성 독거 고령자의 관계자원 형성은 배우자 및 가족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27][1].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자의 성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박기남[26]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여성고령자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고령자의 성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건강상태, 의료시설접근도, 주관적 계층귀속감, 자녀 전화연락빈도는 남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영향

을 미쳤지만, 교육수준, 거주 지역, 용돈수준이 남성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성 고령자에게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남의 다른 연구[25]에서는 서로 다른 생애과정을 살아 온 남녀 고령자의 삶의 조건의 차이를 반영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박기남의 전 연구[26]와 달리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경우 건강상태와 의료시설 접근도는 남녀 고령자에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지만 교육연수와 주관적 계층귀속감은 여성 고령자에게만 유의하고 영향을 미치고, 복지시설 접근도, 자녀 대면 접촉 빈도, 친구, 이웃 전화연락 빈도는 남성 고령자에게만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재은과 장은진[27]은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독거 고령자를 성별 관계자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 고령자가 남성 고령자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또한 성별과 관계자원의 상호작용 항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관계자원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순둘, 정세미, 김빛여율[5]은 65세 이상 남녀를 연구대상자로 하여 세대 내, 세대 간 교류가 여성 고령자와 남성 고령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 고령자는 남성 고령자와 달리 월평균수입과 주관적 건강인식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성 고령자는 여성과 달리 세대 간 세대 교류 상호작용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남녀 노인의 삶의 질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족교류, 타인교류였다.

김경숙[13]은 65세 이상 남성 독거 고령자와 여성 독거 고령자를 연구대상자로 하여 행복감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수준은 여성 독거 고령자가 남성 독거 고령자보다 높았다. 대상 남성 고령자는 여성고령자와 달리 연령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 반면 여성 고령자는 남성 고령자와 달리 학력, 산보여부, 아침식사여부, 수면시간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노인의 행복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득수준, 우울여부, 주관적 스트레스수준, 주관적 건강수준, 삶의 질, 필수의료서비스 존재여부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3.1 자료설명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이다. 조사주기는 각 부문별 2년을 주기로 실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사회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2013년 자료를 이용한 이유는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부문에 조사가 이루어졌고, 다른 연구에서는 빠져있는 사회적 관계 등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더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사는 전국 17,664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내용이다. 분석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 9,456명이었으며 남성고령자 4,113명, 여성고령자 5,343명이었다.

Table 1. Definition of Variables and Measurement Method

Variable Name		Explanation and Measurement Method
Dependent Variable Life satisfaction		1=Very dissatisfied, 2=Slightly unsatisfied, 3=Neutral, 4=Slightly satisfied, 5=Very satisfied
Control Variable		
Demographic characteristic	Age	Continuous variable
	Education level	1≥ Middle school 0 < Middle school
	Married condition	1=Having spouse, 0=other
	Location	1=Metropolitan city, 0=Not metropolitan city
	Household Income	1≥ one million won, 0<Under one million won
	Consumption life satisfaction	1=Neutral, Slightly satisfied, Very satisfied 0=Very dissatisfied, Slightly unsatisfied
Economic condition	Source of living expenses	1=Myself and spouse 0=Child and government support, others
	Ownership of house	1=Own house, 0=Rent, Guaranteed monthly rent, Monthly rent, Free
	Preparation for aging	1=Have 0=Not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1	1=Have someone to help during sick, 0=None
	Social support 2	1=Have someone to borrow money, 0=None
	Social support 3	1=Have someone to help during discourage or depressed, 0=None
	Cohabit with child	1=Yes, 0=No.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Labor forces	1=Do, 0=Not
	Volunteering activity	1=Do, 0=Not
	Social group participation	1=Do, 0=Not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기준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2009년 자료에 따르면 단일정년제를 적용하는 1,779개 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은 57.2세이며, 55세에 정년을 하는 비율은 40%를 차지하고 있다[29]. 또한 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현행법에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60세로 연장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회귀분석에서 사용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Table 1로 나타내었다.

3.2 연구모형

본 연구 자료의 종속변수가 선택형 범주이이서 이에 적합한 모델인 순서형 로짓(ordered logit) 모형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순서형 변수를 모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선형함수로 표현하였다.

$$\begin{aligned} y_i^* = {} & \beta_0 + \beta_1 Age + \beta_2 Edu + \beta_3 Maritas + \beta_4 Region \\ & + \beta_5 Agepre + \beta_6 Livingcost + \beta_7 House + \beta_8 Income \\ & + \beta_9 Constat + \beta_{10} Support1 + \beta_{11} Support2 \\ & + \beta_{12} Support3 + \beta_{13} Children + \beta_{14} Labor \\ & + \beta_{15} Volunteer + \beta_{16} Part + \epsilon \end{aligned}$$

단, Age, Edu, Maritas, Region, Agepre, Livingcost, House, Income, Constat, Support 1, Support 2, Support 3, Children, Labor, Volunteer, Part는 각각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지역, 노후준비, 소비생활만족도, 주택소유, 가구소득, 생활비마련방법, 사회적지지1, 사회적지지2, 사회적지지3, 자녀동거여부, 경제활동, 자원봉사활동, 사회단체참여를 나타낸다. 통계프로그램은 순서형 로직분석에 강력한 Stata 13.0을 활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2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60대는 남성비율(52.6%)이 여성비율(45.1%) 보다 많고 70대 이상은 여성비율이 더 높았다. 교육수준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았다. 즉 남성의 무학 비율(6.3%)이 여성의 무학 비율(28.4%)보다 크게 낮았고, 고졸이상은 남성은 43.2%인 반면에 여성은 15.7%에 지나지 않았다. 결혼 상태는 남성은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무려 87.8%나 되었지만 여성은 51.3%였고, 반대로 사별은 남성은 7.8%이고 여성은 29.3%였다. 거주 지역은 남녀 비슷하게 광역시 거주가 약 40%, 비광역시가 약 60%였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

Category	Male (N=4,113)		Female (N=5,343)		Total (N=9,456)	
	Freq.	%	Freq.	%	Freq.	%
Age						
60 to7 9	2,164	52.6	2,411	45.1	4,575	48.4
80 to 89	386	9.4	755	14.1	1,141	12.1
≥90	19	0.5	66	1.2	85	0.9
Edu. level						
Uneducated	259	6.3	1515	28.4	1,774	18.8
Elementary school.	1,206	29.3	2,218	41.5	3,424	36.2
Middle school	871	21.2	771	14.4	1,642	17.4
High school	1,156	28.1	620	11.6	1,776	18.8
Above College	621	15.2	219	4.0	840	8.9
Married Cond.						
Unmarried	20	0.5	26	0.5	46	0.5
Spouse	3,610	87.8	2,740	51.3	6,350	67.2
Bereavement,	321	7.8	2,451	45.9	2,772	29.3
Divorce	162	3.9	126	2.4	288	3.0
Location						
Metro. city	1,684	40.9	2,035	38.1	3,719	39.3
Not Metro.	2,429	59.1	3,308	61.9	5,737	60.7

Table 3에 따르면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인 남성고령자 가구는 38%인데 비하여 여성고령자 가구는 52.1%로 상대적으로 빈곤한 여성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그 이상의 소득에는 남성 고령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300만원 이상의 가구는 남성고령자가구는 15.8%인 반면 여성고령자가구는 12.6%에 지나지 않았다. 소비생활만족도는 남성고령자가 약간 높긴 하였지만 여성고령자간 큰 차이가 없었다(보통 이상 남성 57% 대 여성 53%). 주 생활비마련방법으로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인 비율이 남성고령자는 76.6%인 반면 여성고령자는 54.1%로 상대적으로 남성비율이 훨씬 높았다. 자기집을 보유한 고령자는 남성 82%, 여성 78.1%로 남·여고령자 모두 자가보유비율이 아주 높았다. 노후준비 비율은 남성이 61.5%로 여성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았다.

Table 3. Economic Characteristics

Category	Male (N=4,113)		Female (N= 5,343)		Total (N=9,456)	
	Freq.	%	Freq.	%	Freq.	%
Household Income (1,000 won)						
Under 1,000	1,564	38.0	2,785	52.1	4,349	46.0
1,000～<3,000	1,895	46.1	1,885	35.3	3,780	40.0
3,000～<5,000	453	11.0	484	9.0	937	9.9
Above 5,000	201	4.8	189	3.6	390	9.9
Consum. life satis.						
Very satisfied	63	1.5	66	1.2	129	1.4
Slightly satisfied	359	8.7	395	7.4	754	8.0
Neutral	1,931	46.9	2,358	44.1	4,289	45.4
Slightly unsatisfied	1,350	32.8	1,898	35.5	3,248	34.3
Very dissatisfied	410	10.0	626	11.7	1,036	11.0
Living expenses						
Myself and spouse	3,152	76.6	2,889	54.1	6,041	63.9
Child or relative	705	17.1	1,944	36.4	2,649	28.0
Gov. Social Org.	254	6.2	508	9.5	762	8.1
Others	2	0	2	0	4	0
House Ownership						
Own	3,374	82.0	4,172	78.1	7,546	79.8
Rent	285	6.9	430	8.0	715	7.6
Guaranteed monthly rent	262	6.4	385	7.2	647	6.8
Monthly rent	74	1.8	119	2.2	193	2.0
Free	118	2.9	237	4.4	355	3.8
Prep.for aging						
Have	2,529	61.5	2,099	39.3	4,828	51.1
Not	1,584	38.5	3,244	60.7	4,628	48.9

고령자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는 사회적지지 및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내용은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경우(사회적지지1)가 남성고령자가 72.9%, 여성 고령자가 68.4%로 남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큰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사회적지지2)는 남성 고령자가 남성고령자 33.5%, 여성 고령자30.3%로 낮긴 하지만 남성고령자가 여성고령자보 다는 더 높았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상대를 구할 수 있는 경우(사회적 지지3)가 남성은 69%, 여성은 70.9%로 비율이 높고 성별 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사회활동 참여 유형 중 경제활동참여 고령자는 남성이 52.4%로 여성 31.5%보다 월등히 높다. 전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0%가 되지 않는 가운데 남성 고령자의 참여가 9.7%로서 여성 고령자(6.8%) 보다는 높은 편이다. 사회단체 참여 역시 남성이 51.1%로서 여성(39.2%)보다 크게 높다.

Table 4. Social Support and Social Activities Participation

Category		Male (N=4,113)		Female (N=5,343)		전체 (N=9,456)	
		Freq.	%	Freq.	%	Freq.	%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1						
	Have	2,999	72.9	3,652	68.4	6,651	70.3
	Not	1,114	27.1	1,691	31.6	2,805	29.7
	Social support 2						
	Have	1,379	33.5	1,619	30.3	2,998	31.7
	Not	2,735	66.5	3,724	69.7	6,458	68.3
	Social support 3						
	Have	2,837	69.0	3,788	70.9	6,625	70.1
	Not	1,276	31.0	1,555	29.1	2,831	29.9
	Cohabit with child						
	Do	1,115	27.1	1,585	29.7	2,700	28.6
	Not	2,998	72.9	3,758	70.3	6,756	71.4
Social activity particip ation	Labor forces						
	Do	21,54	52.4	1,681	31.5	3,835	40.6
	Not	1,959	47.6	3,662	68.5	5,621	59.4
	Volunteering activity						
	Do	399	9.7	362	6.8	761	8.0
	Not	3,714	90.3	4,981	93.2	8,695	92.0
	Social group participation						
	Do	2,101	51.1	2,092	39.2	4,193	44.3
	Not	2,012	48.9	3,251	60.8	5,263	55.7

4.2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독립변수들 간 Pearson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성고령자만의 독립변수들 간 상관계수 생활비마련방법과 노후준비 간 상관관계가 0.492로 가장 높았다. 여성고령자에 대하여도 생활비마련방법과 노후준비 간 상관관계가 0.510으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 값이 크지 않아서 다중공성선의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 모형의 회귀분석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는 성별로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순서형 로짓 회귀모형을 분석하여 나타낸 것이다. 성별 영향요인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은 남성고령자에만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0.05$). 교육수준은 남성고령자와 여성고령자 공히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p<0.001$). 결혼상태가 배우자가 있으면 남성의 생활만족도에만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요인 중 가구소득이 남성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성은 낮지만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쳤고($p<0.05$),

Table 5. Ordered Logit Model for Determinants of the Elder's Life Satisfaction by Gender

Category		Male		Female	
		Odds Ratio (SE)	z value	Odds Ratio (SE)	z value
Demographic characteristic	Age	1.011* (0.005)	2.34	1.004 (0.004)	1.10
	Education level	1.413*** (0.096)	5.07	1.384*** (0.909)	2.95
	Married condition	1.717*** (0.169)	5.48	1.005 (0.062)	0.08
	Location	0.938 (0.059)	-1.00	0.968 (0.055)	-0.56
Economic condition	Household Income	1.296* (0.098)	3.42	1.464*** (0.098)	5.66
	Consum. life satisfaction	3.664*** (0.260)	18.28	4.242*** (0.263)	23.25
	Source of living expenses)	0.988 (0.093)	-0.12	0.931 (0.069)	-0.95
	Ownership of house	1.349*** (0.113)	3.55	1.361*** (0.092)	4.55
	Preparation for aging	1.514*** (0.116)	5.40	1.483*** (0.098)	5.95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1	1.295* (0.100)	3.33	1.140* (0.073)	2.03
	Social support 2	1.353*** (0.094)	4.34	1.373*** (5.100)	5.10
	Social support 3	1.242* (0.928)	2.90	1.435*** (0.094)	5.49
	Cohabit with child	0.753*** (0.054)	-3.89	0.824* (0.055)	-2.85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Labor forces (1=Do)	1.084 (0.076)	1.14	0.920 (0.060)	-1.26
	Volunteerism (1=Do)	1.261* (0.131)	2.23	1.137 (0.121)	1.21
	Social group participation (1=Do)	1.353*** (0.090)	4.53	1.354*** (0.080)	5.11
Log Likelihood		-4808.9468		-6249.7079	
X^2		1119.55		1516.69	

*p<0.05, **p<0.01, ***p<0.001

여성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p<0.001). 소비생활만족도는 남녀 고령자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p<0.001). 주택도 자기 집이 있으면 남녀 고령자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p<0.001). 노후준비 역시 남녀 고령자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p<0.001).

사회적 지지 요인 중에는 사회적지지1(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경우)는 남녀 고령자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p<0.05). 사회적지지2(큰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남녀 고령자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p<0.001).사회적지지3(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상대를 구할 수 있는 경우)이 남녀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공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지만 유의성의 크기는 차이가 있었다(남성고령자 p<0.05; 여성 고령자 p<0.001). 자녀와 동거는 남녀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공히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유의성은 약간 차이가 있었다(남성 고령자 p<0.001; 여성고령자 p<0.05).

사회활동참여 요인 중에는 자원봉사활동은 남성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p<0.05). 사회단체참여는 남녀 고령자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p<0.001).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변수들은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미치는 영향이 성별로 동일하였지만 일부 요인들은 달랐다. 즉, 연령과 결혼상태, 자원봉사활동은 남성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여성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성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성별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은 남성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p<0.05). 직관적으로는 연령이 증가하면 배우자 사별이나 건강악화, 고독 등의 부정적 요소의 증가로 생활만족도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엔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령이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8]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14][25][26]가 있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처럼 연령이 남성에게만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6]와 연령이 남성의 행복감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3]가 있었다.

둘째, 교육수준은 남성 고령자와 여성 고령자 공히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p<0.001). 교육수준은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박기남[25]의 연

구에서는 교육은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만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교육이 고령자 특히 여성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셋째, 배우자가 있으면 남성의 생활만족도에만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p<0.001$). 다른 연구들에서도 본 연구와 비슷하게 유배우자가 남성의 생활만족도에만 정적 영향을 주고 여성의 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6]. 우리나라는 성별 가사와 돌봄 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고령 남편은 아내의 돌봄이나 가사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내는 남편의 돌봄이나 가사지원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따라서 고령 남편에게는 유배우자가 생활만족도의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고령 아내에게는 유배우자가 생활만족도의 부정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가구소득이 남성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성은 낮지만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쳤고($p<0.05$), 여성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도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성으로 영향을 미쳤다($p<0.001$). 다른 연구들에서도 가구소득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13][24][27]. 이는 가구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차이는 없음을 알려준다.

다섯째, 소비생활만족도는 남녀 고령자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p<0.001$). 김영신[12]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남녀 모두 소비생활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만족이 생활만족도와 직접적 관계가 있음을 알려준다.

여섯째, 남녀 고령자 모두 자기 집이 있는 경우가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p<0.001$). 박창제[24]와 Whiteley et al.[31]의 연구에서도 자기 집을 보유할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자가 보유가 생활만족도에 주요한 요소임을 확인시켜준다.

일곱째, 노후준비 역시 남녀 고령자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p<0.001$). 박창제[24]의 연구에서도 노후준비가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준비가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여덟째, 본 연구에서 3가지 유형의 사회적지지 모두가 남녀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먼저 사회적 지지 1(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경우)는 남녀 고령자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p<0.05$). 사회적 지지 2(큰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남녀 고령자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p<0.001$). 사회적 지지 3(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상대를 구할 수 있는 경우)이 남녀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공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지만 유의성은 차이가 있었다(남성 고령자 $p<0.05$; 여성 고령자 $p<0.001$). 다른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동일한 지표는 아니지만 사회적지지 요인들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기남의 연구[25]에서는 자녀 전화연락빈도가 남녀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연구[26]에서는 자녀 대면접촉 빈도와 친구, 이웃 대면접촉 빈도가 남성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재은과 장은진[27]은 관계자원(모든 비동거 자녀,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빈도와 연락빈도 등으로 구성)이 남녀 독거 고령자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에게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아홉째, 자녀와 동거는 남녀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공히 부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유의성은 약간 차이가 있었다(남성 고령자 $p<0.001$; 여성 고령자 $p<0.05$).

열째, 사회활동참여 요인 중에는 자원봉사활동은 남성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p<0.05$). 즉, 남성 고령자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성별로 구분하지 않은 이필호와 조용하[15], 그리고 박창제[24]의 연구도 자원봉사활동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는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남성고령자에게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열한째, 사회단체참여는 남녀 고령자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공히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p<0.001$). 즉, 남녀 고령자 공히 주로 여가 목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단체참여수가 많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

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령자의 사회단체참여와 생활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들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고령자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성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연령, 결혼상태(유배우자), 자원봉사활동이 여성 고령자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남성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남성 고령자가 여성 고령자에 비하여 가부장적이고 변화에 경직적이며 타인과의 관계성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도 우울을 대처하는 데 여성은 가족, 친구, 정신건강 전문가 등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구하지만 남성은 술에 기댈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한다[18]. 따라서 남성 고령자를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배우자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증진 부분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남녀 고령자 모두에게 노후준비는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본 연구에서 노후준비비율이 51.1%에 지나지 않는다.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16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중 44.6%만이 공적연금을 받고 있고[36], 게다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령자도 2016년 12월 기준으로 평균수령금액이 368,210원[21]에 지나지 않아서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적다. 따라서 고령자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노후준비에 대한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를 높여야 한다.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는 1인 가구 비중이 33.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부(32.7%), 부부+자녀(9.8%), 부(모)+자녀(5.5%)로 나타나고 있다[33]. 통계청 부양의식 조사에서는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비율이 1998년에 89.9%에서 2010년 38.3%, 2016년 32.6%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고령자의 비율이 같은 기간 8.1%에서 18.4%, 27.2%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외의 이웃이나 친구들, 혹은 종교나 여가문화활동 등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고령자의 사회단체가입을 촉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고령자의 사회단체가입이 남녀 고령자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컸고 그 방향도 정적이었다. 따라서 고령자의 사회단체가입을 촉진시키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하겠다. 많이 알려진 대한노인회나 한국유권자연맹같은 전국적인 큰 조직의 참여 촉진뿐만 아니라 지역 노인단체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 가령,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게이트볼협회, 당구, 볼링 협회 같은 다양한 생활체육 협회,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회관 등을 통한 서예, 색소폰 등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가입에 대한 프로그램과 정책의 관점에서, 그리고 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Antonucci, T. C., Akiyama, H., “An examination of sex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among older men and women”, Sex Roles, Vol. 17, pp. 737-749, 1987. DOI: https://dx.doi.org/10.1007/BF00287685

[2] Bae, J.-H., “Impact of ageism and voluntary activities of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20, pp. 681-698, 2006.

[3] Chung, S., “A comparative study on the successful aging for Korean elderly women and elderly me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7, No. 4, pp. 829-845, 2007.

[4] Chung, S, Lee, S.-H, “Change in life satisfaction of Korean elderly: comparisons of 1994, 2004, 2008 National Survey Results on the Elderly Life Conditions and Welfare Need”,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1, No. 4, pp. 1229-1246, 2011.

[5] Chung, S, Chung, S., Kim. B., “The influence of intra- and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s on quality of life of older people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ra-generational interac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7, No. 2, pp. 253-280, 2016. DOI: https://dx.doi.org/10.16999/kasws.2016.47.2.253

[6] Guista, M. D., Jewell, S. L., Kambhampati, U. S, “ Gender and life satisfaction in UK”, Feminist Economic, Vol. 17, No. 3, pp. 1-34, 2011. DOI: https://doi.org/10.1080/13545701.2011.582028

[7] Hillier, S. M, Georgia, B, “Aging, the individual, and society”, Wadsworth, 2011.

[8] Hur, J. “Life satisfaction of community resident elderly person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24, pp. 127-151, 2004.

[9] Jeong, K. H., Oh, Y. H., Hwang, N-H., Kwon, J-D et al. “Living profiles of older-persons-only households and policy implicatio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10] Jeong, Y.-J., An, J.-S.,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s on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me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0, No. 2, pp. 535-550, 2010.

[11] Kang, H. J., "Social activity and satisfaction of life in female elders living alone in rural area", Korea Social Welfare Research, Vol. 21, pp. 1-26, 2009.

[12] Kim Y.-S., "A path analysis investigation of consumer alienation, level of consumption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Consumption Culture Studies, Vol. 8, No. 3, pp. 77-101, 2005.

[13] Kim, K. S., "Factors influencing the happiness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elderly living alone: using data from 2015 community health surve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3, No. 2, pp. 97-106, 2017. DOI: https://dx.doi.org/10.14370/jewnr.2017.23.2.97

[14] Lee, K. Y.,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retirement and life satisfaction",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 43, pp. 309-366, 2017.

[15] Lee, P.-H., Joh, Y.-H., "A study on relative influence among leisure activity, volunteering,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15, No. 2, pp. 27-56, 2012.

[16] Lee, S.-C., "Social role and life satisfaction of Korean older adults", Korea Social Policy Review, Vol. 20, No. 4, pp. 9-35, 2013. DOI: https://dx.doi.org/10.17000/kspr.20.4.201312.9

[17] Lee, Y. G., Choi, S. I.,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quality of life to the elderly people participating in the elderly social activities", Korean Policy Sciences, Vol. 20, No. 2, pp. 151-180, 2016.

[18] McLnnis-Dittrich, K., "Social work with elders", Allyn and Bacon, 2002.

[1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Survey of living conditions for the elderly", 2014.

[20]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Number of residents registered 51,750 thousands on August 2017, Report materials 2017.09.04., 2017.

[21] National Pension Service, 2016 National pension live statistics, 2017.

[22] Nimrod, G., "Retirees's leisure: activities, benefits, and their contribution to life satisfaction", Leisure Studies, Vol. 26, No. 1, pp. 65-80, 2007. DOI: https://doi.org/10.1080/02614360500333937

[23] 1365 Volunteer Portal, Volunteer status by age https://www.1365.go.kr/vols/main.do, 2018.

[24] Park, C. J, "Major types of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of Korean elder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 31, No. 2, pp. 157-183, 2015.

[25] Park, K. N., "Gender Differences i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4, No. 3, pp. 13-29, 2004.

[26] Park, K. N., "A Study of the necessity for integrating gender approach with the elderly", Women Studies, Vol. 69, pp. 5-34, 2005.

[27] Seok, J. E., Jang, E. J.,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 resource by gender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living alon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1, No. 2, pp. 321- 349, 2016.

[28] Shin, C. H., "The study on effects of objective life attributes on depression of elderly mediated by life-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0, No. 2, pp. 453-469, 2010.

[29] Sung, J., Ahn, J.m, "A study of retirees' satisfaction on retirement", Korean Economic Studies, Vol. 29, No. 2, pp. 175-212, 2011.

[30] Warr, P., Butcher, V., Robertson, I., Callinan, M., "Older people's well-being as a function of employment, retirement,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role preferenc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Vol. 95, pp. 297-324, 2004. DOI: https://dx.doi.org/10.1348/0007126041528095

[31] Whiteley, P., Clarke, H. D., Sanders, D., Stewart, M. C., "Government performance and life satisfaction in contemporary Britain", The Journal of Politics, Vol. 72, No. 3, pp. 733-746, 2018. DOI: https://dx.doi.org/10.1017/S0022381610000137

[32] Yang, S., Jeong, K., & Choi, J.-S.," Effects of social activities on cognitive function by gender difference among older adults : a nine-year longitudinal analysis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2, No. 3, pp. 225-250, 2017.

[33] Statistics Korea, 2017 Elderly person statistics, 2017.

유 소 현(So-Hyen You) [정회원]

- 2017년 9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 2017년 7월 ~ 현재 : 대구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팀원

<관심분야>
노인, 노인 정책

박 창 제(Chang-Je Park) [정회원]

- 1989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경제학(보건학석사)
- 2004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3년 8월 ~ 2005년 9월 : 한국국제대학 교수
- 2005년 10월 ~ 현재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노인복지, 후생경제